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배울 거리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연옥 영혼들이 하루 빨리 하느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한다.

미리 갖출 거리

종이 접시, 일회용 그릇, 색종이, 송곳, 끈, 풀, 가위, 사인펜, 종이

*김정연_요셉피니 | 서울대학교 교육국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시작 기도



들어가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는 뒤, 다함께 전례력을 보면서 11월이 위령 성월이라는 것과 그 의미를 알려 주고, 우리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교사는 이어서 ‘연옥’ 이 어떤 곳인지 알려 준다.

“연옥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아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곳이에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루 빨리 하느님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해요.”



풀어놓기

예화 - 꿈나라 여행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리디아는 금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몸이 편찮으시던 리디아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리디아는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엄마에게



달려와 울먹이곤 합니다. 엄마는 앨범을 꺼내서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던 리디아가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간질여 눈을 떠 보니 리디아는 갖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에서 있었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정말 아름다다! 음~ 향기도 좋고…….”

그때 누군가가 리디아에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안녕. 나는 문지기 장미꽃이야. 너는 누구니?”

“나는 리디아야. 여기 정말 아름다구나!”

그러자 장미꽃은 리디아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아이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지금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 하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천국에 가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연옥에 계시다는 장미꽃의 이야기에 리디아는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곧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요. 그 마음을 읽은 장미꽃이 “이 문을 지나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리디아에게 귀뜸을 해 주었어요.

리디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리디아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할아버지께서 계셨어요. 리디아는 할아버지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힘이 들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랑 만날 게 반갑지 않으세요?”

할아버지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낀 리디아가 묻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럴 리가 있니? 할아버지는 우리 리디아를 만나서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시간들이 조금 힘들구나.”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 준다면 하느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야.”

리디아는 자신 있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할아버지가 얼른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느님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아빠, 엄마와 열심히 기도할게요.”

“허허허, 고맙구나!”

잠에서 깨어난 리디아는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빠, 엄마와 열심히 기도드렸답니다.

정리 및 나눔

- 리디아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 리디아의 할아버지처럼 연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리 친구들은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들기

기도 바구니 만들기 - “두 손 모아 기도해요!”

갖출 거리 : 종이 접시, 일회용 그릇, 색종이, 송곳, 끈, 풀, 가위, 사인펜, 종이 방법

- ① 종이 접시의 날개 부분을 꽃 모양으로 오린다.
- ② 일회용 그릇은 색종이나 스티커로 예쁘게 꾸민 다음 끈을 연결할 수 있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③ 종이 접시에도 구멍을 뚫어 일회용 그릇 위에 얹은 다음 끈으로 연결하면 기도 바구니가 완성된다.



교사는 기도 바구니가 완성되면 연옥 영혼을 위해 또는 하늘나라로 가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바구니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한다. 기도 바구니가 가득 차면 미사 때에 직접 봉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다.



모으기

교사는 연옥에서 깨끗하게 정화되길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의 기도나 희생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 번 알려 주며 마무리한다.



마침 기도